



# 구리작은도서관 스스로아카데미

##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 이렇게 '스스로'를 시작했어요

2018년에도 '애기똥풀도서관'을 중심으로 '산마루작은도서관', '꿈꾸는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통로', 이렇게 네 도서관이 모여서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해서 구리시에 있는 다른 작은도서관과 연대하여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를 탄생시켰다. 2018년 11월 말에 탄생한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는 신생 작은도서관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하던 작은도서관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작은도서관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며 책을 만나고 사람을 만났던 사람들이 받았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게다가 점점 각박해져 가는 사회에 책을 매개로 여기저기서 모여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다.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의 책과 함께 하는 사랑방 역할은 어느 단체도 따라할 수 없을 것이다.

2019년도 구리에서의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은 작년에 발족한 구리시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회원 도서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에 지원하게 되었다. 구리의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이 도서관과 책에 대한 인식이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사업을 통해 책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장서와 운영철학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각 도서관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스스로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구리시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철학이나 장서 배치 등 실질적인 도움도 얻었지만, 더욱 놀랄만한 것은 구리시 작은도서관원 지원조례를 전면 개편하게 되었다

는 것이다. 역시 함께 모이고, 배우고 토론하면, 문제의식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일이었다. 스스로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구리시작은도서관지원조례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 실무자들이 매달 한 번씩 모여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해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다 보니, 우리의 현 상황이 보이고, 문제점들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 이렇게 공부했어요

**구리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실무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유익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대상 구리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활동가  
시간 모든 강의는 10시에 시작

날짜	강의 제목	강사	장소
6월26일	작은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독서토론 수업모형	김순옥 (즐거움 책임기, 바른 글쓰기 대표)	꿈꾸는 작은도서관
7월24일	책과 사람을 잇는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박소희(어린이와 도서관협의회 이사장)	늘푸른 작은도서관
8월21일	마을속 작은도서관 임. 그 의미	강우홍(동화작가)	더삼재움 작은도서관
9월18일 (10:00~15:00)	도서관의 장서, 그림책 이야기 작은도서관의 오늘과 내일	최은희(어린이도서관 연구회사무총장) 워크숍 진행: 한은희 (구리작은도서관 협의회 회장)	새성동 작은도서관

주최 1기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주관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문의 010-3559-0248



첫 강의는 독서지도에 대한 강의였는데, 도서관 실무자들과 봉사자들이 독서하는 좋은 방법이라든지 책에 대해 모르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첫 강의로 선택했던 것인데, 실무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독서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강의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의회 박소희 이사장님이 쓴 책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라는 책을 각 도서관 실무자들이 읽고 와서 강의를 들었다. 전국의 작은도서관의 실태뿐만 아니라 구리시작은도서관의 현황을 자료에 근거해서 얘기해주셨다. 정작 우리는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구리시작은도서관의 현 상황이 현장과 다르게 통계 자

료나 실질적 자료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사립공공작은도서관들이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관계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통계자료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 강연을 기회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자부심과 책임감을 더욱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강의는 동화작가이자 독서문화 운동가이신 강무홍 작가를 모시고, 책의 역사와 그림책,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를 들었다. 이태준 작가의 “엄마 마중”이라는 그림책을 읽어 주셨는데, 그 책이 그렇게 심오하게 다가 온 것은 처음이었다. 월북 작가이기에 이태준의 동화가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너

무 늦게 읽혔던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월북 작가의 판금 조치 없이 그의 동화를 마음껏 읽었다면, 우리나라의 동화가 30년은 앞서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요즘 많은 작가들이 아주 아름다운 책들을 그리고, 쓰고 하는 것들은 알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었다. 강무홍 선생님 하고는 점심 식사하고, 같이 뒤풀이 하는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이야기, 책 이야기 등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강무홍 선생님이 따뜻하고 세심한 마음을 고스란히 받아서 힐링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 같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네 번째 강의에서는 도서관의 장서와 동화 이야기를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최은희 사무총장님이 해주셨다. 오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못 했지만,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주시고 했던 것들이 좋았다고 했다. 작은도서관이 품위가 있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서관이 되려면 서가를 잘 배치하고 책을 아름답게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점심 시간 이후 워크숍으로 모였는데, 이때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가 시장님 면담을 통해 작은도서관 지원조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지원조례 개편에 대한 논의로 진행되었다. 구리시작은도서관지원조례가 경기도작은도서관지원조례에 많이 못 미치고, 현 작은도서관들의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대폭 개정하기로 했고, 시립도서관과 만나서 논의하고, 시의원과도 논의하면서 공청회를 통해 구리시작은도서관조례를 전면 개편하기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찌면 스스로 아카데미를 통해 모여서 배우고 토론하고 이야기 하는 과정 속에서 산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구리시작은도서관지원조례 개편을 우리 구리협의회가 힘을 모아 해 낼 것이다. 월례회 외에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 모임을 할 것을 ‘2019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마지막 날 워크숍을 통해 결의한 바 있다. 우리 구리작은도서관협의회 도서관은 지속적인 만남과 연대 속에서 서로 격려해주며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